

복지에 경영학 접목... 효율적 복지시스템 개발

조선대 경영학부 홍만희 씨 등 4명 'AI 기반 복지서비스 플랫폼' 제안 추계학술대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정책 홍보비 등 비용 감소효과 기대



왼쪽부터 조선대 경영학부 홍만희, 이진, 박모세, 김수호 씨.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복지 서비스 플랫폼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1일 조선대에 따르면 한국경영정보학회가 최근 개최한 '2020 KMIS 추계학술대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경영학부 이진(4년), 홍만희, 박모세, 김수호(이상 3년)씨로 구성된 정복자(정부의 복지를 정복하자, 지도교수 민진영)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AI 기반 복지서비스 맞춤 신청 및 관리 플랫폼을 제안했다.

정복자팀은 이 플랫폼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4400여 개의 복지 정책을 사용자 맞춤형

으로 추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앱(APP)을 제시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 여부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해 AI 스피커를 보급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복지 정책 홍보비 절감, 정보 접근성 향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복자팀을 이끈 홍만희씨는 "세계적으로 공공영역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고령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국가 복지 비용의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영학의 관점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1989년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회원수 약 4000명의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한 지식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한 종합학술단체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보성군 진우회, 코로나19 대응 손세정제 1만4000개 기탁



보성청년들의 모임 '진우회'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써 달라며 휴대용 손세정제 1만 4000개(2000만원 상당)를 보성군에 기탁했다. 이광수 진우회 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보성지역의 감염 예방을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손세정제를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돕는데 써주세요"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수급자가 현금 50만원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만 했어요.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고 일주일 지났던 7일 '이름 없는 기부천사'가 찾아왔다.

도망치듯 행정복지센터를 떠난 그가 남긴 현금과받은 액수로 50만원이었다.

커피 한 두잔 값을 아껴 모은 삼짇돈이 아닌 엄두실한(嚴冬雪寒)에 요긴하게 쓰였을 한 달 치 생계비를 두고 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삶과 일상을 옥죄던 지 꼬박 1년이 흘렀어도 나눔의 온정은 광산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에게 써달라며 한 주민이 찾아와 100만원을 두고 갔다.

이날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왔다.

그도 약속이나 한 듯 현금 100만원과 함께 좋은 일에 써달라는 당부만 남기고 떠났다.

11일 광산구 관계자는 "기부금이 다가오는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온정을 나누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산=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태현 교사 '교수·학습 연구대회'서 최우수 등급

'I·N·S·T·A·R 교수학습 모형'



도), NCS 원리 탐구, Strength (직무역량 강화), Technique (발명 기법), Analysis(특허명세서 분석), Result(결과 도출)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I·N·S·T·A·R 교수학습 모형의 전체 단계를 수행하며 흥미 기반의 원리 탐구 중심 실습, 발명 기법 학습, 특허명세서 분석, 발명 아이디어 창출 등 다양한 창의적 직무 발명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자연과학고 이태현 교사가 최근 열린 '2020년 전국 특성학교·마이스터고 교수·학습 연구대회'에서 'I·N·S·T·A·R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해 1등급(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연구대회는 특성학교·마이스터고의 효율적인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방법 우수사례를 발굴해 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 중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광주자연과학고 이태현 교사의 연구주제는 'I·N·S·T·A·R 교수학습 모형을 통한 창의적 직무발명능력 향상'이다. 'I·N·S·T·A·R 교수학습 모형'은 6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I·N·S·T·A·R'는 Interesting(흥미유

이태현 교사는 "이번 'I·N·S·T·A·R 교수학습 모형'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전공 지식 및 실무 능력 확장,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정정환 신임 본부장 취임

일터안전 확보 주력



정정환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신임 본부장이 11일 취임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남지역본부 안전보건부장, 광주광역시본부 교육센터소장 등을 역임했다.

정 본부장은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건설업 및 조선업 사고사망 감소 등 일터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전보·신임 ▲ 안전관리담당 백귀훈 ▲ 분정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김락균 ▲ 사회적기차 추진담당 황신 ▲ 심사평가팀장 장광진 ▲ 운영지원팀장 최은수 ▲ 인재양성팀장 김기현 ▲ 문화기술개발팀장 조인호 ▲ 방송산업팀장 김희숙 ▲ 한류사업팀장 김남걸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로코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5 UHD 습터(재)	00 임행이사-조선비밀수사단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축구야구말구(재)	00 12 MBC 뉴스 20 와우와와 롤링프렌즈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업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재난탈출 생존왕(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정글의 법칙(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임행이사-조선비밀수사단	20 빈집 살래 in 서울 확장판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20 펜트하우스 히든룸 -숨겨진 이야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토론	15 불타는 청춘
[12]	10 KBS결찰 다큐멘터리 <나를 찾는 수행>(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00 나이트 라인 30 네모세모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태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이어 슈퍼패	13:00 EBS 다크프라이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유럽 소도시 기행 -천국보다 아름다운 남부 프랑스>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앤 문	<지금 살만한 집 2부 내 집 곳은 비릿가 작은 집>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신년특별기획-듣고보고 라디오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2일(음 11월 29일 庚申)

<p>36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48년생 교육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리라. 60년생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여 혼란스럽다. 72년생 강력한 역학 관계 하에 놓이는 판세이니라. 84년생 목격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96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8, 63</p>	<p>42년생 제반사를 살피 위주로 조응해야 한다. 54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78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90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 세밀하게 찾아낸 후에 대처하라. 02년생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17, 66</p>
<p>37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다. 49년생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61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것이다. 73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85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97년생 필연적이려면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3, 73</p>	<p>43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55년생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67년생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모호할 수 있다. 79년생 도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91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03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27, 65</p>
<p>38년생 불안정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50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 봐야겠다. 62년생 좌우기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74년생 반복 속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다. 86년생 현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 해야겠다. 98년생 실익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행운의 숫자 : 04, 79</p>	<p>32년생 그룹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44년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56년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68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92년생 오랜 세월 동안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88</p>
<p>39년생 상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51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3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자질이 없을 것이다. 75년생 기대를 잔뜩 했다가 막상 펼쳐 보면 허망할 것이다. 87년생 발전의 물꼬 틀 때는 길사가 발생하리라. 99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험해지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9, 98</p>	<p>33년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45년생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당황하리라. 57년생 일단 수용하고 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다. 69년생 따질 계제가 아니니 일단 수용하고 보자. 81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는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93년생 결과는 마진가지이다. 행운의 숫자 : 11, 94</p>
<p>40년생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만하다. 52년생 감각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64년생 한 발씩만 양보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 76년생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88년생 번거롭다고 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해결 될 수 없느니라. 00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질하라. 행운의 숫자 : 16, 50</p>	<p>34년생 만만치가 않으니 단단히 버려야 할 것이다. 46년생 일처리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다. 58년생 머리로서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라. 70년생 목표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변수를 가지고 있다. 82년생 행다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어 있다. 94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4, 86</p>
<p>41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53년생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 것이니라. 77년생 억지로서는 아니 되는 법이니 무리 없는 양상으로 이끌 필요가 있느니라. 89년생 총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01년생 근면함이 복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20, 64</p>	<p>35년생 실행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셈이다. 47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이다. 59년생 당해 사항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71년생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83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현명하다. 95년생 오행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행운의 숫자 : 30, 96</p>